

술과 문학

장 덕 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I. 序

술과 문학과 관계의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바늘과 실은 둘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효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술과 문학은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 반드시 共存해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兩者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학하는 사람이 술을 좋아했고 그래서 술과 관계되는 문학작품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의 심포지움에도 <술과 문학>이란 제목이 붙은 것 같다.

<술과 문학>은 범위가 넓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범위를 좁히겠다. 곧 한국 고전문학과 술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고전문학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만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시에 있어서는 李太白의 영향이 컸었는데 그는 술을 꼭 좋아했다. 하루에 3백잔을 마셨다니 대단한 주량이다. 어린이의 동요에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李太白이 노던 달아」라고 전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李太白의 玩月보다 好酒를 더 좋아했고, 역시 중국사람인 劉伶이 술을 좋아하여 <酒德頌>을 지은바 있고, 또 그는 「貌甚醜而志氣放曠 以宇宙爲狹性好酒 常携酒自隨使人 荷鍤從云云 死便埋我故着此頌酒德之美也」라고.

이 주덕송이 유명하여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사실은 술의 덕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경지이다. 참고로 그 후반부를 소개한다.

「無思無慮 其樂陶陶 兀然而醉 兀然而醒 靜聽不聞雷霆之聲 執視不見秦山之形 不覺寒暑之切肌 嗜慾之感情情 觀萬物 擾擾焉 如江漢之浮萍 二豪侍側焉 如螺贏之與螟蛉」

<술과 문학>이란 제목을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문학사에서 이것을 정리해 보려 했으나 원체 방대해서 짧은 시간에 모두 거론할 수가 없다. 그만큼 술과 문학의 관계의 자료가 많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樓亭과 술, 그리고 문학>이란 항목과 <술과 시조문학>을 설정하여 간단히 고찰하기로 하겠다.

II. 樓亭과 술 그리고 문학

술은 아무데서나 마실 수 있지만, 문학생산과 연관될 때의 술은 아무데서나 마실 수가 없다. 그리고 문학 역시 무우밭에서 무우 뽑듯이 쉽게 창작되는 것이 아니다. 문학이 술과 연결되어 생산되는 장소는 우리나라에서는 樓亭이라는 특수한 장소가 있었다. 樓와 亭은 구별되는 이름이다. 경관좋은 곳에는 지금도 樓와 亭이 세워져 있다. 東國輿地勝覽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885개의 樓亭이 있었고, <문화유적총람>에 의하면 남한에만도 609개의 누정이 있다고 한다. 이 누정은 문학, 특히 시의 산실이라고 할 만한 곳이다. 옛날엔 누정에 모이는 선비들은 의례히 술잔을 돌리면서 詩會를 열었다. 술이 없는 樓亭은 생각할 수 없다.

東方의 詩豪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고려시대의 시인이오, 정치가였던 李奎報의 한문수필에 <四輪亭記>라는 것이 있다. 이규보는 자칭 三酷好先生이라고 했는데 三好는 술, 시, 거문고를 꼭 좋아해서 지은 붓이다. 그는 정자를 좋아했는데 이 정자에다가 바퀴 넷을 달아서 수시로 장소를 옮기면서 정자의 멋, 술과 시의 멋을 만끽하려고 했던 것이다.

(前略)

「사륜정이란 것은 龍驤(이규보 자신)가 설계하고 아직 건축하지 못한 것이다. 여름에 손님과 함께 동산에 다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혹은 앉아서 술잔을 돌리며 바둑도 두고, 거문고도 타고 뜻에 맞는대로 하다가 날이 저물면 파하니 이것이 한가한 자의 즐거움이다(中略). 바퀴를 넷으로 하고 정자를 그 위에 지었는데 정자의 사방이 6척이고 들보가 둘, 기둥이 넷, 대나무로 연목을 하고, 대자리를 그 위에 덮으니 이는 가벼움을 취한 것이다(下略).

정자의 면적은 모두 36平方尺인데 여기에 거문고, 술단지, 술병, 소반, 기명바둑판 등을 갖추고 여섯사람(거문고 타는자, 노래하는자, 詩僧, 바둑두는자 두사람, 그리고 주인)이 앉게 되어 있다. 소위 이동식 정자이다. 바퀴가 있으니 하인들이 밀고 끌어서 경치 좋은 곳에 세워두고 즐기는 것으로 귀족들의 사치스런 생활

의 일면이다.

누정은 樓閣과 亭子를 합친 약칭이다. 누정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벽이나 문을 두지 않고 높이 지은 다락모양의 건축물들이다. 산수가 좋고 지대가 높은 곳에 세워진 것으로 놀이나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누정은 남성위주의 공간이요, 실제 생활과는 인연이 먼 閑居의 곳이다.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사방의 경계를 완상하며 吟風弄月이나 하면서 시도 읊고, 歌客을 불러 노래도 감상하는 풍류의 장소가 바로 누정이다. 실제로 생활하기에는 합당하지가 않다. 그러기 때문에 한가하고 여유있는 사람들의 휴식의 공간이다. 그래서 정자에는 술이 따르게 마련이다.

문학과 술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정자를 하나 소개하겠다. 전남 潭陽에 있는 俛仰亭이다. 면양정은 16세기(中宗時)의 시인이요, 관료였던 宋純의 뉘이면서, 또 정자의 이름이다. 송순의 고향이 바로 이 정자가 있는 곳이다. 송순의 나이 41세때 金安老一派가 정권을 잡고 어진 선비들을 배척하므로 宋純이 그 화를 피해 고향에 내려와 이 정자를 짓고 閑居하였다. 20년이 지나 송순의 나이 60세때 이 정자를 중수하고 高峯 奇大升이 亭記를 짓고, 白湖 林梯가 賦를 지었다. <俛仰>의 뜻을 정자에 걸려 있는 현판의 글씨를 인용하였다. 「俛有地仰有天 亭其中興浩然, 招風月揖山川 扶藜杖送百年」.

이 면양정 주인인 宋純은 成宗朝에 태어나서 宣祖때에 죽은(1493~1583) 91세의 장수시인이다. 20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內職, 外職을 거쳐 77세에 右參贊兼春秋館事에 이른 고령의 관료이기도 하다. 明宗때 乙巳土禍가 일어났다. 戚臣인 尹元衡이 정권을 잡고 많은 선비를 죽였다. 이 때 송순은 비분강개하여 이런 시조를 지었다.

꽃이 진다하고 새들이 서러워 마라
바람에 흩날리어 꽃의 탓 아니로다.
가노라 휘젓는 봄을 새와 무삼하리오

모진 바람에 떨어지는 꽃, 이것은 죄없이 죽어가는 당시의 착한 선비들을 상징한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사회의 비극을 꽃, 새, 봄에 비유하여 美化한 씬씨는 과연 놀랍다. 당시 어떤 기생이 술자리에서 이 시조를 불렀다. 같은 자리에 陳復昌이가 듣고 깜짝 놀라며, 이는 반드시 누구를 비방한 노래라고 단정하고, 그 지은이를 대라고 심문했다. 그러나 기생은 어떤 無名의 過客이 부른 것이라고 딱 잡아 떼었다고 한다. 과연 오늘날까지도 시조집에는 이 시조의 작가명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俛仰集 4권 부록).

송순이 50세, 개성留守로 있을 때 황진이와도 사귀었다는 기록이 있다. 송순은 기회 있을 때마다 詩會를 열고 당시의 歌客詩人들은 초대했는데 황진이도 이 자리

에 자주 참석했다고 한다. 황진이의 시도 면양정의 영향을 받아서 원숙해 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송순의 回榜宴(과거급제 60회연)을 담양의 면양정에서 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도 이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꽃과 술을 하사했다. 이 때의 잔치에는 松江 鄭澈·奇高峯·林白湖 등 당대의 멋쟁이와 도관찰사, 각 고을 守令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밤이 깊도록 술에 만취하였다. 분시 술을 좋아하는 宋純도 취했고, 松江·白湖·高峯도 취했다. 밤이 깊어지자 松江이 「公의 가마를 우리가 메자」고 제언하여 당대의 멋쟁이들이 송순을 <대나무로 만든 가마>에 태우고 놀았다는 기록도 있다. 이는 술과 풍류가 어우러져서 당대의 문학인들의 一大 향연으로 우리 文學史에서도 중요롭게 다루고 있다.

風霜이 섞어친 날에 갖피은 黃菊花를 金盆에 가득담아 玉堂에 보내오니 桃李야 꽃인체 마라님의 뜻을 알리라.

가을의 어느날 明宗은 宮園에 피어 있는 黃菊花 한 떨기를 玉堂官에게 주며 노래를 지어 바치라고 했다. 그러나 그 玉堂官은 창졸히 당한 일이라 어찌할바를 몰랐다. 이 때 숙직을 하고 있던 송순이 위의 시조를 지어서 玉堂官에게 주었다. 이것을 왕에게 바치니 왕은 노래를 보고 반기며 누가 지었느냐고 물었다. 玉堂官은 감히 속일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아뢰었다. 明宗은 감탄하여 큰 상을 내렸다고 한다. 이 시는 격조높은 韻法을 구사했다. 문학을 아는 왕과 그 밑의 신하 「그 왕에 그 신하」라고 할 수 있다.

면양정이 있는 潭陽지방에는 이 밖에도 정자가 많다. 鄭松江이 <星山別曲>을 지었다고 전해지는 <息影亭>도 여기에 <松江亭>도 이곳에 있다. <醉歌亭>도 이곳에 있는데 그 이름이야 말로 술과 문학의 混然一致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 취가정은 忠壯公 金德齡 장군이 살던 고장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서 있다. 松江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서려있는 <環碧堂>이란 정자에서 걸어서 五分거리에 있다. 정자 이름의 유래는 石洲 權華舉(1569~1612)의 꿈에 충장공이 나타나서 <醉時歌>라는 노래를 불렀다. 石洲도 이 노래에 화답하는 시를 지었다. 이런 사연을 기념하기 위해서 1890년에 충장공의 후손이 이 정자를 지었다는 것이다. 김덕령 장군의 <취시가> (원문은 한시인데 여기 번역 소개한다).

「한잔하고 부르는 노래 한 곡조
듣는 사람 아무도 없네
나는 꽃이나 달에 취하고 싶지도 않아
공혼을 세운다니 이는 뜬구름
꽃과 달에 취하는 것 또한 뜬구름
한잔하고 부르는 노래 한 곡조

이 노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내 마음 다만 원키는
긴 칼로 밝은 임금 받들고저]

이에 화답한 權石洲의 시(漢詩인데 역시 번역)

[지난날 장군께서 쇠창을 잡으셨더니 장한 뜻 중
도에 꺾이니 天命을 어이하리 돌아가신 그 님의 그
지없는 恨을 분명한 한 곡조 취시가로 읊으셨네]

누정과 관계되는 문학의 자료는 한없이 많다. 이 누
정문학이 한결같이 술이 介在되어 있으니 누정과 문학,
그리고 술은 不可分離 관계에 있다.

III. 술과 시조문학

<時調文學事典> (정병욱 편저)에는 총 2376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 술과 관계되는 노래, 곧 <
술>, <酒>, <薑>을 題材로 한 것이 200~300에
달하고 있다(나는 이번 기회에 정확한 통계를 내려 했
으나). 술과 시조문학의 연관성은 역시 작자별로 고찰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 시조의 大家요, 술
의 達人이라 할 수 있는 松江 鄭澈에 관해서 이야기하겠
다.

재넘어 成勳農집에 술익단말 들고 누은 소 발로 박차
언치노아 지를타고 아하야 네 勳農 제시나 鄭座首 왔다
하야라

술과 벗을 좋아하는 작가의 성품이 소박, 淡泊하게
되어 있다. 표현기교의 妙와 멋은 中章에 있다. <언
치>는 안장말에 까는 담요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가마
나니 거적같은 것이 격에 맞을 것이다. <지를타고>는
눌러탄다는 뜻인데, 이 전체의 詩行에서 작자의 불현듯
생각나는 벗과 술,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성급함이 그
대로 토로되었으나 조급하거나 초조한 데가 없다. 馮내
음 풍기는 田園의 향취가 시 전체에 무르익어 있다. 이
런 시를 쓴 松江이 당쟁속에서 정치적 숨쉬를 보여 辛
相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문학과 정치의 調和는 한갓
기적만은 아니다. 여기에 松江이 좋아하는 술의 힘(魔
力)도 껴 調和의 妙를 얻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松江은 西人으로서 항상 東人의 공격대상이었다. 東人
들은 松江을 「大臣으로서 酒色에만 빠졌으니 나라일을
그르쳤다」고 반박하여 한때 明川, 晋州, 江界 등지로
귀양사리까지 했다. 松江의 愛酒性으로 보아 「酒色云
云」하는 것은 一理가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인으
로서 어디 松江 뿐이겠는가. 그가 술을 좋아했다는 것은
그의 걸작<將進酒辭>로서도 넉넉히 짐작이 간다.

「한 薑 먹세그러 또 한 薑 먹세그러

꽃 꺾어 算농고, 無盡無盡 먹세그러 이몸 죽은
후면 지계우에 거적덜어 주리혀 매여가나 流蘇實俄
에 萬人이 울어내나, 어욱새 속새 덩가나무 白楊
에 가기곳 가면 누른 해 흰달 가는 비 굵은 눈 쇼
소리바람 불제 누 한 薑 먹자 할고, 하물며 무덤우
에 잔나비 파람 불제 누우친달 어찌리]

이 노래를 金春澤이 漢譯했는데 이것도 名文이다. 그
첫대목 「一盃一盃復一盃」는 요새도 酒客들이 즐겨서 부
르고 있다. <술의 노래>의 공통점은 현실향락이다.
죽으면 그만인 인생인데 살았을 적에 실컷 마시고 놀아
야겠다는 뜻이 농도질게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
죽음에 대한 자세, 어차피 인생은 죽어야 하는 존재이
니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
는 자세가 심각하다면 심각하고 쉽다면 쉽게 해석하고
있다. 앞에 舉例한 중국의 劉伶은 하인에게 지계를 지
워서 삼을 갖고 다니며 아무데서나 죽으면 그 자리에
매장해 달라고 했다. 술을 마시다가 죽는 것을 기대하
는 것이다. 松江의 <장진주사>도 <무덤위에 원숭이
휘파람 불제>를 생각했다. 술은 이렇게 <死>와 직결
되는 <힘>이 있었던 것 같다. 그만큼 生과 死를 연결
하는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사나 省墓는 산자와 죽은자의 대화이다. 生과 死의
만남인데 이 때에는 꼭 술이 개재되어 있다.

「靑草 옥어진 골에 자는다 누었다.
紅顏을 어데 두고 白髯만 문혔난다.
잔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허 하노라.」

이 노래는 林白湖가 이미 죽은 黃眞伊의 묘앞에서 읊은
시조이다. 林梯(1549~1587)는 그 號가 白湖이다. 이
미 俛仰亭, 宋純을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松江과
함께 송순의 가마를 땀 정도의 멋장이었다. 면앙정의
門中에 드나들 때부터 白湖는 黃眞伊와 서로 사귀었다
는 이야기도 있고, 이와 반대로 늘 기회가 맞지 않아서
生前엔 한번도 서로 만나지도 못했다는 說도 있다. 白
湖는 39세를 일기로 요절한 天才詩人이요 또 패기가 하
늘을 찌를듯 한 好男兒였다. 당시 黨爭속에서 허덕이는
俗儒들과 벗하지 않고 오직 文學과 술로 정열을 태웠던
사람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法度밖의 사람」이라고
평했다. 그러니 自由人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를
악평하는 사람들도 白湖의 文學을 높게 평가했다.

황진이의 묘를 찾아갈 때에도 술 한병을 가지고 가서
死者와 주거나 받거나 하며 술을 마셨을 것이다. 그리
고 위에 인용한 시조를 불렀고, 그 시조가 우리 詩歌史
에 남아 있는 것이다.

생각컨대 면앙정 송순의 시와 술이 松江·白湖·眞伊에
이어져서 문학사의 한 脈을 이루고 있다. 송순의 장편

가사<면앙정가>는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시되는 자료인데 그 가사의 末尾에

「술이 익었거니 벗이야 없을소나...

온가지소리로 辭興을 배야거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야 붙었이라...

라는 귀절이 있다. 술은 모든 現實的인 고민, 갈등을
녹여버리는 효능이 있다고 했다.

IV. 餘 瀆(結論을 대신하여)

고려의 李奎報는 15세때부터 술에는 제법 一家를 이
루었다고 한다. 75세까지 살았으니 어지간히 많은 술을
마셨을 것이다. 그의 청년기의 작품에는 「시의 즐거움」
과 함께 「술의 즐거움」이 항상 따라다녔다. 정녕 李奎
報에게 있어서만 술과 문학이 실과 바늘과의 관계와 같
았다.

「술은 시가 되어 훨훨 나는데

여기 미인의 뉘, 꽃이 있다.

오늘 아침 이 돌이 쌍쌍하니

귀인과 함께 하늘에 오름과 같도다」

그가 지은 시의 한토막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으
레 色을 좋아한다고 했으나 규보는 여기엔 예외였다.
오직 그의 연인은 술이요 시일 뿐이다. 「술 한잔에 시
한수」는 방랑시인 김삿갓만이 아니라 이규보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많은 시중 술없이 지은 것이
과연 몇수나 될까?

이규보의 수필 중에 <色喻>라는 글이 있다.

「세상에는 色에 혹하는 사람이 많다. 그 色이란
붉은색, 흰색, 푸른색, 빨간색들을 이룸인가?
(中略) 이른바 色이란 것은 사람의 빛깔을 뜻하는
것이다. 푸른 머리, 흰 살결, 여기에 기름과 분을
바른 여인이 눈을 흘기며 마음을 도도와 한번 웃으
면 그 웃음에 나라가 기울어진다. 이 미녀를 보는
사람은 모두 정신이 아찔하고, 만나는 자는 모두
마음이 미쳐서 귀여움과 사랑이 담뱃 넘쳐서 형제
와 친척도 인중에 없게 되고 만다(中略). “애교를
머금은 여인의 눈은 칼이요, 꼬부라진 눈썹은 도끼
요, 불룩한 두 볼은 독약, 매끄러운 살결은 쯤이
다”라는 말이 있다(中略).

아! 나는 장차 풀무질을 하여 솟불을 피워 嫖
母, 敦治(중국의 대표적 醜貌)의 얼굴을 千千, 萬
萬을 만들어서 요망스런 美貌의 얼굴들을 그 속에
가두어 버리겠다. 그러면 비록 난초의 향내나는 기
름과 연지·분의 연모가 있어도 똥, 오줌, 진흙, 흙

덩이일 뿐이요, 毛嬙, 西施같은 美女들의 예쁨이
있어도 모두 敦治 嫖毛일 뿐, 여기에 어찌 혹하여
빠짐이 있겠는가」.

이 글은 <美女讚>이 아니라 <醜女讚>이다. 이규보
는 美女에 대한 질투랄까 病的인 반발의식이 있는 것
같다.

여하간 酒色이란 말이 있어서 많은 酒客文人들이 <
酒色>에 빠져버린다는 역사가 있기에 여기 특수한 예
를 들어 본 것이다.

이규보는 술을 좋아했으나 節制의 酒客이었다. 그러
기에 75세까지 살았는가 보다. 그의 글에 <樽銘>이란
짧막한 글이 전하고 있다. 全文을 번역하면 이렇다.

「너의 배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사람들은 옮겨다
가 자기의 배속에 넣고 있다. 너의 배는 비록 가득
찼다 하더라도 때때로 덜어내기 때문에 넘칠 염려
가 없으나, 사람의 배는 가득가득 차도 반성할 줄
모르고 마시기만 하니 마침내 쓰러지기가 쉽다.」

이제 본 주제의 마무리를 해야 하겠으나 애초부터 <술
과 문학>에는 결론이 있을 수 없다. 요는 문학은 진실
의 표현이요, 그 탐구이다. 술이 진실이란 말은 아니
다. 그러나 예로부터 종교적 의식에는 의례히 술이 중
개의 구실을 한 것은 사실이다. 신과 인간, 이승과 저
승의 架橋의 구실을 하는 술이라고 생각할 때 술의 神
聖性を 새삼 깨닫게 되는데 이는 술이 眞實에 접근해
있다는 뜻도 된다. 사람은 神앞에서는 잠시라도 眞實해
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現實에서도 「醉中에 眞談」이란
말이 있다. 평범한 말 같으나 이는 오랜 體驗에서 나온
말로써 역시 眞實에 가깝다. 술에 醉하면 形式的인 베
일을 벗어버리고 赤裸裸한 自身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이는 眞實해 보려는 자세이다.

결국 문학과 술의 공통성은 이 眞實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지나친 나의
詭辯만은 아닌 것이다.

V. 요 약

한국의 고전문학은 주로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그
만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술과 관계된 문학에서는 그 생산에 있어 특히
樓閣, 亭子라는 특수한 장소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다. 누
정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다락 모양의 건축물로 산수 좋
은 높은 곳에 세워졌다. 이 樓亭은 문학 특히 시의 산실로서
옛날의 많은 선비들은 樓亭에 모여 의례히 술잔을 돌리면서
詩會를 열었다.

樓亭과 관계된 문학자료는 한없이 많으며 이 樓亭 문학에

는 한결같이 술이 제재되어 있으므로 누정과 문학, 그리고 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조문학과 술과의 연관된 노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시조의 대가이며 술의 달인이랄 수 있는 僉仰亭宗純, 송강, 정철이나 林白湖의 시

조와 고려때의 李奎報의 시들에서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결국 문학과 술의 공통성은 진실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한다.